

『영미연구』

제49집 (2020): 55-82

<http://doi.org/10.25093/jbas.2020.49.55>

“그의 마음은 여전히 리처드 파커에게 붙들려 있다”

트라우마와 치유로서의 증언: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 연구

조 성 란

단독 / 경희대학교 교수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얀 마텔의 『파이 이야기』를 트라우마 소설로 보고 파이가 겪는 외상적 사건과 트라우마의 증상, 그리고 치유의 과정을 연구한다. 파이의 트라우마는 중층적이다. 그가 겪은 외상적 사건은 집단적 문화적 트라우마로서 이주와 고향 상실, 난파, 가족들의 죽음, 자연 요소들에 의한 신체적 트라우마,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와 함께 태평양 바다 위 구명선 위에서 생존하기, 식인과 살인을 함으로써 인간 윤리의 경계 넘기 등이다. 파이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증상은 우울과 강박, 그리고 반복되는 리처드 파커의 악몽이다. 리처드 파커는 파이 트라우마의 기표이다. 파이는 현재 반복되는 과거의 외상적 사건의 사후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 트라우마 증상의 극복과 치유는 기억, 상실의 인정, 그리고 애도를 거쳐야 하며 궁극적으로 증언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트라우마의 정면돌파를 이루어내어야 가능하다. 창조적 트라우마 서사는 생존자가 파편화된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 그 기억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를 재창조할 수 있게 돕는 능동적 행위이다. 이는 파이가 트라우마의 희생자로 남아 있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치유되는 길에 다가가 있다는 것

을 의미한다. 트라우마의 서사화는 역설적으로 파이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작가가 공감하되 선불리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지양하고 공감적 불안정성을 가진 청자로 있을 때 파이는 자신의 외상 경험을 증언하면서 외상의 정면돌파에 가까이 갈 수 있다. 이야기로 끝을 잘 맺는 것은 완전한 치유는 아닐지라도 치유로 한층 접근해 가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안전한 공간과 믿을 만한 듣는 자가 있기에 가능하다. 한편, 파이의 증언을 듣는 행위 자체와 그 내용을 통해서 작가는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쓸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하기와 삶을 등치시키는 작가의 삶도 파이의 이야기를 만나 창조적으로 소생한다.

**주제어:** 『파이 이야기』, 얀 마텔, 트라우마, 치유, 증언

## I. 들어가며

2001년 출판된 캐나다 작가 얀 마텔(Yann Martel)의 『파이 이야기』(*Life of Pi*)는 2002년 영향력 있는 맨 부커상을 받고 이 안(Ang Lee) 감독에 의해 2012년 영화화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소설은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와 같은 표류 모험담으로 읽힐 수도 있고 소설 속 사건을 재현하는 두 이야기 중 한 이야기가 다른 한 이야기의 알레고리인 것으로 읽힐 수도 있는 복잡한 글쓰기 형식을 취하고 있는 텍스트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표적인 표류기의 전통 속에서 이 소설을 읽거나 글쓰기 형식에 근거하여 포스트모던 정전에 위치시키는 등의 장르적 연구, 내용으로는 다양한 관점의 종교 원리, 이성/신과의 관계 등의 관점에서 연구됐다. 『파이 이야기』에서 주목할 만한 또 다른 범주는 트라우마이다. 트라우마와 그 영향이 소설의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면의 국내 연구는 아직 없고 주목할 만한 해외 연구도 레베카 던컨(Rebecca Duncan)이 포스트모던 생존자 서사 속에서 다루는 트라우마

연구에 그친다. 하지만 던컨의 연구는 트라우마 적 요소보다 생존자 서사의 장르적 특성과 파이의 포스트모던 주체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논문에서는 『파이 이야기』를 트라우마 소설로 보고 트라우마와 증언으로서의 치유의 관점에서 『파이 이야기』를 새롭게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트라우마 이론에 기반한 텍스트 분석이다. 트라우마 이론은 심리적 트라우마 현상 연구를 개척한 프로이트와 인문학적 트라우마 연구를 선도한 캐시 캐루스(Cathy Caruth), 생존자 연구를 수행한 로버트 J 리프톤(Robert J Lifton)의 이론이 주를 이룬다. 이 논문을 통해 『파이 이야기』 연구의 외연을 넓히는 한편 트라우마와 치유, 그 문학적 재현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파이 이야기』를 트라우마 소설의 관점에서 조명해 보면 다층의 외상적 사건과 그 영향과 극복이 서사의 큰 줄기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외상적 사건뿐 아니라 서사화되는 과정에서 치유로서의 증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는 작품 전체를 통괄하는 주제이다. 소설 서두에서 만나는 마흔을 넘기지 않은 토론토의 인도계 캐나다인 대학교수 파이 파텔(Pi Patel)은 일견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과거의 외상적 사건에서 기인하는 트라우마의 고통을 겪고 있다. 열여섯 살이었을 때 소년 파이는 문화적, 개인적 외상을 겪는다. 정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고국에서 뿌리 뽑히듯 갑자기 원하지 않는 이민을 떠나야 했고 그 과정에서 태평양에서 배가 난파하는 외상적 사건을 겪는다. 이 난파라는 파국이 플롯의 정점을 이룬다. 곧이어 난파로 인한 가족의 죽음과 태평양에서의 227일간의 표류 등 파이는 중층의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다. 특히 표류 중의 살인과 식인 사건은 마음속 깊이 숨겨진 트라우마이다.

파이처럼 외상사건을 겪은 주체는 사후적으로 트라우마 증상을 보인다. 이와 동시에 트라우마 극복을 또한 시도한다. 트라우마는 재현하기 어려우므로 트라우마 소설은 외상의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 대표적 트라우마 소설인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의 『빌러비드』(*Beloved*)에서와 같이 비선형적 서사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시점, 파편화된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는 다르게 마텔은 트라우마 재현의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해, 더 나아가 언어로서의 재현 자체의 어려움을 보여주기 위

해, 같은 외상사건을 두 가지 다른 내용의 이야기로 재현하는 방식을 택한다. 한 이야기는 환상이 가미된 이야기의 방식이고 다른 한 이야기는 사실주의적 이야기 방식이다. 1부(토론토와 Pondicherry *Toronto and Pondicherry*)는 파이의 스토리텔링과 허구의 작가이자 마텔이기도 한 서술자 “작가”의 대담의 장으로 이루어진다. 이 대담의 장에는 독특하게도 듣는 자인 작가의 생각과 느낌, 관찰이 이탤릭체 표기로 총 여덟 번에 걸쳐 삽입되어 있다. 이탤릭체 삽입은 말하는 파이와 듣는 작가의 차별화를 이루며 1부를 트라우마의 치유의 장인 대담의 장으로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트라우마 이론과 일반적 성격을 검토하고 『파이 이야기』에서 파이가 겪은 외상적 사건과 트라우마 증상을 다룰 것이다. 그리고 파이의 트라우마 극복과 치유가 1년여에 걸친 증언으로서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논하고자 한다. 또한, 파이를 이야기할 수 있게 한 작가의 듣는 자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윤리에 대해 고찰할 것이다.

정신분석학에서 트라우마는 강력한 흥분의 유입,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는 환자의 무기력, 정신조직에 일으킨 격동적이고 오래 지속되는 영향력 등의 요건으로 정의된다.<sup>2)</sup> 프로이트에 의하면 트라우마란 “정신생활에서 짧은 기간에 매우 강한 자극의 증가를 가져와 적절히 해소될 수 없는 외상적 체험”을 의미한다(“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391-92). 트라우마는 그리스어의 신체적 상처를 뜻하는 말이었으나 정신분석이나 정신의학에서의 상처를 의미하며 트라우마의 대중적 의미도 정신적 심리적 상처의 은유로 쓰인다. 히로시마 원폭과 홀로코스트 등 외상적 사건의 생존자 연구를 수행한 리프톤은 캐루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외상적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생존자는 무엇보다 생존 자체에 전념하게 되지만 그 사건이 지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Caruth, “Interview” 128). 1980년대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의 인식 등 정신의학적 차원에서 트라우마가 논의되었다면 1980년대 후반부터 인문학자들의 트라우마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1990년대 이후 트라우마 연구가 급속히 증가했다. 앤 화이트헤드(Anne Whitehead)의 『트라우마 소설』 (*Trauma Fiction*)에 따르면 1990년대에 트라우마의 문화적 윤리적 의미를

설명하려는 트라우마 이론이 등장했다(Mill 재인용 4).

인문학에서의 트라우마 연구는 외상적 사건 자체가 가지는 중요성뿐 아니라 그 사건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외상적 사건의 기억과 증상과 재현방식, 또한 트라우마 증언을 듣는 청자 혹은 읽는 독자의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인문학의 대표적 트라우마 이론가인 캐루스는 프로이트의 트라우마 이론과 PTSD 정의를 토대로 트라우마 개념을 발전시켰다. 캐루스에 의하면 트라우마의 정의는 전례 없는, 압도하는 경험을 겪으며 이에 대한 반응은 제어되거나 흡수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이다. 트라우마적 사건은 ‘사후적으로’ 트라우마 희생자를 환각과 여러 침투현상 등 반복적인 충동으로 찾아와 트라우마의 장면을 다시 연출한다(Caruth, *Trauma* 11). 캐루스가 강조하는 것은 트라우마적 사건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을 만큼 압도적이므로 그 당시에는 온전히 시각으로 흡수되지도 못한다는 것이다. 트라우마는 단순히 개인의 과거의 원초적 폭력적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 흡수되지 않은 방식, 첫 번째 경험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소유되지 않았던 경험이 돌아와 차후에 생존자에게 출몰하는 것이다(Caruth, *Unclaimed Experience* 4)

트라우마의 특징은 증언 불가능하고 재현 불가능하며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으로 ‘행동화’(acting out)해 재연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트라우마 생존자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외상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트라우마 생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려면 행동화를 지나서 ‘정면돌파’(working through)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 이 정면돌파의 방법이 ‘이야기하기’이다. 이때의 이야기는 외상에 대한 증언이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인터뷰한 도리 라웁(Dori Laub)은 『증언』(*Testimony*)에서 외상적 사건을 목격한 이후 증언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이루어진다고 말한다(69). 알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그러나 반복되는 외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치유 과정은 이야기를 구성하고 역사를 재구성하고 사건을 “재외연화”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재외연화란 발화한 이후 다시 들어오는 것, 즉, 자기 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사건을 전달한 이후 다시 자기 속으로 가져오는 것이다. 외상적 사건의 재외연화는 그 이야기를 발화하고 전달할 때에만 발생하며 효과가 있다. 라웁에 의하면 증언한다는 것은 생존자를

오염시킨 외상적 사건의 악을 재외연화하는 것이며 이는 현실에 대한 주도권을 재주장하는 것으로 나아간다(69). 외상적 사건의 생존자로서 파이의 과제는 ‘행동화’되고 재연되는 트라우마의 상처를 증언함으로써 자신을 인간 이하의 상황으로 몰고 간 외상적 사건의 오염을 재외연화하는 것, 즉 발화를 통해 표층화하고 다시 받아드리는 것이다. 『파이 이야기』가 단순한 표류 모험담이 아니고 트라우마 소설인 것은 소설의 1부에서 파이가 하는 이야기가 자신의 체험의 재외연화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파이 이야기』를 트라우마 서사로 보고 외상적 사건의 생존자인 파이가 증언을 통해 치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 장에서는 우선 파이가 겪은 중층의 외상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II. 외상적 사건

파이는 여러 외상적 사건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겪었으며 파이의 트라우마는 다음과 같이 중층적이다. 그가 겪은 외상적 사건은 우선 고향에서의 뿌리뽑힘, 난파, 가족들의 죽음이 있다. 태평양에서 표류하면서 겪는 외상적 사건은 호랑이에 대적하며 바다 위 구명선 위에서 생존하기, 식인과 살인이라는 인간 윤리의 경계 넘기 등이다. 이로 인하여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생존자로서의 죄의식, 끝없이 보이는 바다에 혼자 떠 있다는 데서 오는 심리적 압박과 구해지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인간 윤리의 경계를 넘었다는 데서 오는 죄책감 등의 트라우마가 따른다. 파이가 겪는 외상적 사건을 크게 세 가지로 논하고자 한다.

### 1. 집단적, 문화적 트라우마: 고향 상실과 이주

파이의 가족은 정치적 혼란 때문에 갑자기 고향을 떠나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는다. 파이의 가족이 사는 프랑스령 식민지의 수도인 Pondicherry(퐁디셰리)는 1954년 11월

에 인도 연합에 합류하였다(Martel 12).<sup>3)</sup> 1970년대 중반 인도는 혼란기였고 1976년 2월, 간디 여사를 심하게 비판하는 타밀나두 정부를 델리가 공격하여 권력이 이양된 상황이다. 아버지 산토시 파텔(Santosh Patel)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인도”(The New India)는 산산이 붕괴하였으며(79) 간디 여사의 독재를 예상하여 갑작스러운 이주가 결정된다(78). 어머니 지타 파텔(Gita Patel)도 동의했으며(79) 이렇게 정치 경제적 이유로 파이의 가족은 풍디세리를 벗어나야 했다. 파이는 천국에서 추락하듯 “지상의 낙원과도 같은”(14) 풍디세리 동물원을 갑자기 떠나야 했다. 파이와 형 라비(Ravi)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떠난다는 통고를 받고 “벼락을 맞은 것 같다고”(79) 느낀다. 형제들은 “캐나다라니! [...] 옳드려 코가 닿을 것 같은 스리랑카도 달나라 같은데[...] 캐나다는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79) 라고 생각한다. 풍디세리 동물원에서는 ”왕자처럼“(14) 지냈으나 캐나다로 떠나는 이민자로서의 이들은 “우연히 동물을 많이 가진 가난한 가족”(79) 에 불과하다. “낙원”에 있던 동물들은 헐값에 물건으로 팔려나가거나 배에 실려 함께 이주를 떠난다. 파이의 가족은 집단으로 고향을 상실하는 데서 오는 트라우마를 겪는다. 그들에게 이주는 “뿌리 뽑히고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수평선 너머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다. 그것은 “거지처럼 느끼게” 하며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고 어려운 정글로 들어가는 것”(77) 과도 같은 트라우마이다. 이러한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이민을 떠나며 태평양을 건너는 이들의 배는 출항한 지 얼마 안 되어 원인 모를 파선을 당한다. 다음은 파선으로 인한 가족의 죽음이라는 파이의 트라우마를 논하겠다.

## 2. 가족들의 죽음이라는 트라우마

파이는 “하나님 살려 주세요!”(God, preserve me! 140) 하고 신계 구원을 외치며 생의 의지를 불태우고 살아남는다. 하지만 난파로 가족들의 실종과 죽음을 겪고 이 불가사의한 외상적 사건은 파이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파이의 트라우마는 설명 없이 겪는 파국과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형의 죽음, 본인의 죽음에 근접한 경험에서 온다.

이러한 이해할 수 없고 흡수되지 않는 파국과 상실의 상황을 파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죽는구나. 왜 이래야 하는지 설명도 듣지 못하고? 천국에서 오는 설명도 듣지 못하고 지옥을 겪으며 살고고?<sup>74)</sup>

Every single thing I value in life has been destroyed. And I am allowed no explanation? I am to suffer hell without any account from heaven? (98)

압도적인 외상적 사건은 그가 알고 있었던 삶의 의미체계에서는 이해되지도 받아드려 지지도 않는 것이다. 부모와 형의 실종과 죽음은 표류 초기에 그를 괴롭히고 우울하게 한다. 수평선을 멀리 바라보며 실종된 두 마리의 새끼를 찾는, 같이 표류하는 오랑우탄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도 한다. 파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나는 태평양 한가운데 고아가 되어 홀로 떠 있었다. 몸은 노에 매달려 있고, 앞에는 커다란 호랑이가 있고, 밑에는 상어가 다니고, 폭풍우가 몸 위로 쏟아졌다”(107) 고 말한다. 그러나 어느 시점 이후 리프트온이 앞서 논했듯 파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한다. 작은 구명보트와 뗏목 위에서 227일간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생존을 위한 투쟁이 시작된다. 파이는 신의 도움이 있으므로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상황에 맞춘 자기 나름의 방식의 기도와 예배로”(208) 신에 의탁하며 정신적인 힘을 얻는다. 또 이성과 과학, 동물원에서 자라며 배운 지식 등을 이용해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폭풍과 뱀벌 같은 자연 요소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 굶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등 소설의 2부 태평양(“The Pacific Ocean”)의 부분은 회고적 난파 표류 서사를 이룬다. 파이가 견딜 수 없는 것은 육체적으로는 목마름과 굶주림이고 정신적으로는 권태와 절망, 그리고 공포심이다. 파이는 “공포심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 [...] 공포심만이 생명을 패배시킬 수 있다”(161)라고 하며 “근본을 흔드는 공포 끝에 다가서서 느끼는 진짜 공포는 욕창처럼 기억에 등지를 튼다(162)”라고 말하며 그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의 공포가 트라우마가 됨을 이야기한다. 다음에 논할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가 이러한 죽음에 직면하는 공포심의 대표적인 원인이다.

### 3. 리처드 파커라는 트라우마

태평양이라는 외상적 사건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트라우마 서사로서의 한 축은 파이와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의 호랑이의 관계를 둘러싼 것이다. 리처드 파커와의 관계는 단계적으로 상반된 두 가지 의미로 발전한다. 첫째, 구명선 위의 400파운드의 뱅갈 호랑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그는 상존하는 적이자 죽음의 위협이다. 그래서 호루라기를 채찍으로 삼아 조련하고 영역 싸움을 하며 지배해야 할 대상이다. 파이는 “리처드 파커를 길들여야 했다. 그 필요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 그와 나의 문제, 문자 그대로 또 비유적으로 같은 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처지(164)”였다고 말하며 호랑이를 길들이기 시작한다. 두 번째로 역설적으로 리처드 파커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동반자로 받아들여진다. 호랑이가 내는 가장 조용한 소리로 콧바람 같은 것, 다정함과 해를 끼칠 의도가 없음을 나타내는 “프루스텐”(prusten 163)이라는 소리를 내면서부터 호랑이는 생존의 동반자이자 “평온함과 목적의식과 온전함까지”(162) 안겨다 주는 친구가 되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236)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랑의 대상이 된다.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같이 죽음을 마주하며 파이는 호랑이를 먼저 먹게 한다. 그리고 파이는 호랑이가 곧 자기임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리처드 파커와의 관계는 살인과 식인의 경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리처드 파커는 살인과 식인을 했고 호랑이 리처드 파커와 동일체가 된 파이 또한 살인과 식인을 했다. 동물원에서 길러진 호랑이임에도 불구하고 리처드 파커는 바다에서 만난 낯선 프랑스 사람을 잡아먹어 버린다. 외상적 사건의 두 번째 방식의 이야기에서 파이도 아주 맹렬하게 살인을 저지를 뿐 아니라 기꺼이 식인을 한다. 파이가 죽인 자는 구명선 안에서 선원의 다리를 잘라내 고기잡이 미끼로 쓴 요리사이다. 그는 식인했을 뿐 아니라 파이의 엄마를 목을 잘라 죽인 악의 화신이다. 그러나 파이도 그에 못지않은

악의 면모를 보이고 그 요리사를 죽인다. 파이는 “무시무시한 역동성을 가진” 칼로 그를 반복해서 찌르고 또 찌른다.

그러다가 우리는 싸웠고 내가 그를 죽였어요. 악한의 기준으로도 자기가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는 너무 지나쳤고 이제는 더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는 왜 그리 사악하게 버틸까요? 나는 그의 위를 찔렀어요. [...] 칼을 빼서 또 찔렀어요. 목을, 목젓 바로 옆을 찔렀어요. 그의 몸이 들처럼 바닥에 쿵 떨어졌어요. 그리고 죽었죠. [...] 칼에는 무시무시한 역동성이 있어요. 일단 동작에 들어가면 멈추기가 힘들죠. 나는 그를 반복해서 찔렀어요.

Then we fought and I killed him. He knew he had gone too far, even by his bestial standards. He had gone too far and now he didn't want to go on living any more. Why do we cling to our evil ways? I stabbed him in the stomach. [...] I pulled the knife out and stabbed him again. I stabbed him in the throat, next to the Adam's apple. he dropped like a stone. And died. [...] A knife has a horrible dynamic power; once in motion, it's hard to stop. I stabbed him repeatedly. (310)

파이는 요리사가 사람으로서 넘어서는 안 될 악의 선을 넘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곧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는 “우리”--그와 요리사 또는 인간 전반--는 왜 악에 집착하는 것인지 자문한다. 살인으로서도 법적으로 넘어서야 할 경계를 넘었으나 파이는 이제 그보다 더한 식인을 저지른다. 살인은 인간사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식인이야말로 인간사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윤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그러나 파이는 요리사를 ‘기꺼이’ 먹는다.

그의 심장이 골칫거리였어요. 간신히 심장을 빼냈죠. 맛이 좋았어요, 거북이 고기보다 훨씬 더. 간을 먹었어요. 살점도 큼직하게 잘라냈어요

His heart was a struggle. I managed to get it out. It tasted delicious, far better than the turtle. I ate his liver. I cut off great pieces of flesh. (310-11)

이 살인과 식인의 사건은 파이에게 트라우마로 남는다. 가장 큰 트라우마는 자신에게 내재하는 악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가 죽인 “지독한 악한”처럼 파이도 “마찬가지의 악-이기심, 분노, 무자비함-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He was such an evil man. Worse still, he met evil in me-selfishness, anger, ruthlessness 311). 파이의 트라우마는 자신 내면의 악의 존재와 살인과 식인의 기억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I must live with that 311).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잃고 인간으로서의 윤리적 경계를 넘어선 것이다. 파이가 이야기하는 외상적 사건의 첫 번째 방식의 스토리텔링에서도 살생과 식인을 저지르는 사건은 파이의 트라우마이다. 힌두교도로서 채식주의자였던 파이에게 살생은 금지된 것이다. 굶주림에서 첫 번째 살생을 저지르는 파이는 별벌 떨어 손도끼로 물고기의 머리를 담요로 가리고 내려친다(183). 첫 번째 방식의 이야기에서도 파이는 식인을 했다고, 살점을 미끼로 쓰고 또 조금 먹었다고(256) 고백한다. 두 번째 방식의 이야기에서처럼 맹렬한 살인과 식인이 아니고 몰래 숨어서 말린 부분을 조금 먹는 식인이지만 윤리적 경계를 넘어선 것은 같다. 파이의 외상적 사건의 실제로 살생과 살인, 그리고 식인은 파이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과 죄책감의 트라우마를 낳는다. 이러한 압도적 외상적 사건들이 트라우마로 사후적으로 재연되는 양상을 살펴보자.

### III. 증상

트라우마 생존자들은 사후적으로, 악몽, 심적 마비 현상, 반복 강박 등의 병리적 증상을 보이는데 파이도 이런 증상을 보인다. 파이에게 나타나는 트라우마의 증상은 우울과 강박, 그리고 반복되는 악몽이다. 살아 돌아온 자로서, 20여 년이 지난 외상적 사건

사후에 파이가 작가에게 하는 “아주 오래전 이야기”(XI)는 “고난을 겪은 후 난 슬프고 우울했다”(14) 라는 첫 문장으로 시작한다. 또 파이는 음식 통조림을 구석구석 채워두는 강박증을 보인다. 작가는 “그의 찬장은 꼭 차 있다. 모든 문 뒤에, 모든 선반마다 깡통과 패키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레닌그라드 공격이라도 견딜 만한 음식 저장 이다(25)”라고 집안 곳곳에 통조림 등의 음식물이 쟁여져 있는 것을 관찰한다. 구명선 위에서의 굶주림과 연결되는 강박 증상이라고 보인다. 이야기할 때는 심적 마비를 보이듯 파이의 얼굴은 웃음을 보이지 않고 굳어있으며 손을 저으며 빨리 이야기하는 등, 트라우마의 각종 증세를 보인다(8). 작가와 대화할 때는 불안 증세를 보인다. 작가는 파이가 때때로 흥분한다고 말한다. 작가가 무슨 말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사연 때문”이다(42). 자기 사연이란 억압되어 감추어졌던 트라우마가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당시의 상황을 다시 살게 됨으로써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기억과 스토리텔링은 파이가 처음 경험했던 당시의 불안과 공포, 절망 등의 부정적 감정을 일깨운다.

파이의 대표적 트라우마 증상은 반복되는 악몽이다. 외상적 사건이 파이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프로이트가 이론화한 “반복 강박”(repetition compulsion) 개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프로이트는 「왜락원칙을 넘어서」에서 심한 물리적 충격, 철로 재난, 그리고 생명이 위협해지는 기차 사고를 겪은 후에 발생하는 상황으로 외상성 신경증이 발생할 수 있고 제일차 세계 대전에서 참전한 군인들도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참전 군인들이 반복해서 악몽을 꾸는 것에 기반하여 반복 강박 개념을 이론화했다(12). 파이의 삶에서 감당하기 힘든 외상적 사건이 악몽, 플래시백, 그리고 다른 행동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은 모두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의 예라 할 수 있다. 태평양에서 겪은 외상적 사건, 감정, 행동, 신체적 감각이 꿈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현재의 경험 위에 겹쳐져서 나타난다. 파이는 이런 반복 강박으로 리처드 파커의 악몽을 꾸다. “리처드 파커”는 파이 트라우마의 기표이다. 그의 외상은 “리처드 파커”라는 악몽으로 표상된다. 파이는 리처드 파커가 “죽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를 잊어본 적이 없었다” 말한다(6). 파이는 주로 악몽인 꿈에서 지금도 리처드 파커를 본다. 작가는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그의 마음은 리처드 파커에게 붙들려 있다”(42)라고 관찰한

다. 파이는 현재 반복되는 과거 외상적 사건의 사후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다.

리처드 파커는 쪽 나와 함께 있었다.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 보고 싶다. **지금도 꿈에서 그를 본다. 주로 악몽이지만**, 사랑이 얼룩진 악몽이다. 사람의 묘한 심리다. 어떻게 그렇게 붙썩 날 버릴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 작별 인사도 없이, 한 번 돌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훌쩍 가버렸을까? 도끼로 쪼개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

Richard Parker has stayed with me. I've never forgotten him. [...] I miss him. **I still see him in my dreams. They are nightmares mostly, but nightmares tinged with love.** Such is the strangeness of the human heart. I still cannot understand how he could abandon me so unceremoniously, without any sort of good bye, without looking back even once. That pain is like an axe that chops my heart. (6 emphasis added)

사실 “리처드 파커”는 리처드 파커가 아니다. 서기의 기록 실수 전 그의 이름은 원래 “써스티”(Thirsty)이다. 리처드 파커라는 호랑이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는 다수 있다. 예컨대 써스티라는 이름이 상징하듯 리처드 파커를 인간의 본능인 “이드”로 해석하거나, 불안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보거나 인간 내면의 동물성을 상징한다고 보는 해석 등이 있다. 정신분석학자 토마스 앨런(Thomas Allen)은 리처드 파커를 식인과 살인이라는 인간으로서의 윤리를 거스른 죄책감의 상징, 도덕적 상처로 본다(965).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지키고 있던 가치관과 윤리를 저버린다. 이런 외상적 사건에서 파이는 호랑이의 형태를 분리(dissociation) 해 트라우마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호랑이(죄책감)를 내면에 품고자 하는 동시에 그것이 사라지기를 또한 바란다(965). 본 논문은 앨런의 논지와 궤를 같이 하지만 리처드 파커를 도덕적 상처를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상실에 대한 트라우마와 그 증상의 상징으로 해석한다.

아버지 샌토시 파텔이 말하듯 호랑이는 결국 호랑이일 뿐이지만 “리처드 파커”라는 기표를 가진 병갈 호랑이는 파이에겐 기존의 호랑이와는 다른 기의를 갖는다. 앞서

보았듯 리처드 파커는 태평양에서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난파와 227일 간의 표류라는 외 상적 사건을 같이 겪어낸 동반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파이는 리처드 파커가 표상하는 공포, 살인과 식인, 윤리의 경계를 거스르는 악을 저질렀다는 트라우마의 표상인 악몽이 “사랑으로 얼룩진 악몽”이라고 말한다. 사랑의 대상과의 작별이므로 “가슴을 도끼로 찌는 것 같은”(6) 상실의 고통 또한 따른다. 지금까지 파이가 겪은 외상적 사건과 트라우마 증상의 면모를 집중해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증언, 즉 라웁이 말하는 재외연화과정을 통한 트라우마의 치유 과정을 논구하고자 한다.

#### IV. 증언과 치유

앞서 논한 재외연화는 자신이 겪은 외상적 사건으로 오염되었다고 생각되는 자신의 상처를 발화하고 다시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이 과정을 거쳐 치유가 일어난다. 주디스 허먼(Judith Herman)은 이러한 트라우마의 치유를 좀 더 단계적으로 정의하였다. 허먼에 의하면 치유의 단계는 ‘안전’ ‘기억과 애도’ ‘연결의 복구’라는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인 안전은 힘, 통제능력, 안전한 생활환경, 경제적 안정을 확립하는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기억과 애도의 단계로 트라우마의 원인이었던 외상사건을 구체적으로 발화 증언하며 그때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 즉 재외연화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연결의 복구로 사회에 재진입하는 단계로 삶의 의미 회복과 관계형성을 미래에서 찾으며 새로운 삶을 구축하는 것이다. 허먼은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치료의 최종 목적은 심상을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언어화하는 데 있다고 말한다(허먼 260-354). 허먼의 트라우마 치유단계를 적용해 볼 때, 파이는 선택한 국가 캐나다를 사랑하는 것과 교수라는 직업과 가정을 통해 안전과 연결의 복구 단계는 어느 정도 이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가 얘기하듯 꾸준한 종교의식도 그의 안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트라우마 생존자는 종교에 기대어 부서진 자아의 회복을 이루기도 한다. 하지만 트라우마로 인하여 가지고 있던 종교가 깨어졌을 때 회복하기

는 더욱 어려워진다. 파이의 경우는 유년기부터 종교가 “그의 마음에 가깝게 자리하였으며”(27) 태평양에서의 트라우마를 겪는 동안 때로는 절망하여 신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려웠고 신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적도 있었음에도 그에게 “환한 빛이며” (a shining point of light 209) “사랑”인 신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지켜냈다.

하지만 안전과 연결의 복구라는 비교적 평온한 삶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파이의 치유는 기억과 애도의 단계는 시작되지 못하고 외상의 반복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지점이다. 트라우마의 극복은 기억, 상실의 인정, 그리고 애도를 거쳐야 하며 궁극적으로 증언인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트라우마의 정면돌파를 이루어내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라카프라는 완전한 트라우마 극복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외상을 부분적으로 극복하고 외상적 사건을 비판적으로 보고자 하는 과정으로서 정면돌파를 이야기한다(143). 트라우마 극복의 첫 단계는 기억이다. 과거 기억의 파편을 조립하여 수면으로 떠 오르게 의식화하는 작업은 외상적 체험의 복원이라는 점에서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트라우마 이론에서 지연성과 사후성을 강조하는 캐루스는 압도적 외상 당시 흡수되지 못한 사건이 사후적으로 흡수되었을 때 트라우마가 오며 트라우마를 일으킨 사건의 기억이 실제 사건보다 고통스럽다고 말한다(Caruth, *Listening to Trauma* 26) 기억이 트라우마의 희생자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Caruth, *Listening* 29). 따라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은 기억하고자 하면서 동시에 잊고자 한다.

기억과 함께 트라우마 극복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실의 인정이다. 상실을 인정할 때 애도가 시작될 수 있다. 파이는 조국을 잃었고 가족을 잃었으며 자기 자신의 일부를 잃었다. 현재의 파이는 작가에게 이야기하는 중 흑백 사진 너 장을 보고 조국 인도를 기억한다(87). 조국은 너 장의 사진으로 남았다. 그 자리에 현전하는 사진은 부재의 상징이다. 조국의 사진이지만 그곳에 있지 않은 조국 상실의 기표이다. 파이는 이제 인도에는 자기에게 남은 것이 없음을, 자신의 상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마음속에서 그릴 수는 있지만 얼굴을 이제는 기억할 수 없음 또한 인정한다(87).

파이의 기억과 상실과의 직면을 이끌어 주는 것은 작가에게 이야기하기, 즉 외상

적 사고 경험의 증언이다. 증언은 트라우마의 정면돌파를 통해 치유에 다가가게 하는 동시에 애도하게 한다. 앞서 살펴보았듯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라는 말이 작가가 토론토에서 파이를 만나 이야기를 부탁했을 때 처음 하는 말이다. 그가 마흔이 가까이 된 중년이고 이야기는 그가 열여섯 살 때의 일이므로 20년이 넘게 지난 과거의 일이다. 그는 이야기를 시작한다. 파이는 이 이야기를 소설에서 세 번째 반복하는 것이다. 외상사건 직후 일본인 조사관에게 첫 번째 방식과 둘째 번 방식으로 외상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작가와 독자는 그가 이 이야기를 아디루바사미(Francis Adirubasami) 씨에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작가가 인도에서 만난, 소설 처음에 등장하는 아디루바사미씨는 소설에서 이야기의 중개자, 우화 속의 조력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아디루바사미 씨의 중개로 그럴듯한 이야기의 고갈로 인생의 불꽃마저 사라지고 있는 소설가인 작가가 파이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다. “들으면 신을 믿게 될”(X) 대단한 이야기가 파이가 겪은 트라우마의 이야기이다. 코울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노수부의 노래」에서 앨버트로스(albatross) 새를 쏘고 난 이후 바다에서 겪은 트라우마를 결혼식 하객에게 반복하고 싶어 하는 노수부처럼 파이도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반복 강박처럼 반복하고 싶어 한다. 파이는 일 년여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작가를 그의 집에 초대하여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가는 방해하지 않고 “말을 거의 하지 않으며”(42) 파이가 소환하는 상처로 남은 기억의 편린을 이야기로 듣는 중이다. 작가는 기억의 바다에서 기억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려갔다” 하므로 “그가 멈추기 원할까 봐” 걱정한다. 그러나 파이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작가가 관찰한 중요한 지점은 “이 오랜 세월 이후에도 리처드 파커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42) 것이다. 자기 사연, 즉 의식으로 떠오른 트라우마의 기억은 트라우마 생존자인 그를 흥분하게 하고, 리처드 파커라는 트라우마는 억압된 채 그의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다.

**그는 가끔 흥분한다** 내가 한 말 때문이 아니다(난 말을 거의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이야기 때문이다. 기억은 바다를 이루고 그는 그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려갔다 한다. 나는 그가 멈추기 원할까 봐 걱정한다. 하지만 그는 내게 자기 이



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한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한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의 마음은 여전히 리처드 파커에게 붙들려 있다.

*At times he gets agitated. It's nothing I say(I say very little). It's his own story that does it. Memory is an ocean and he bobs on its surface. I worry that he'll want to stop. But he wants to tell me his story. He goes on. After all these years, Richard Parker still preys on his mind.* (42 italics original, emphasis added)

기억과 이야기하기는 트라우마의 치유로 가는 과정이다. 파이는 중층의 외상적 사건의 생존자이며 그의 이야기하기는 그의 외상사건에 대한 증언이다. 리프톤에 따르면 자아가 부서진 상태에서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외상체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일어난 사건의 고통을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준다.<sup>5)</sup>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아 회복의 중심이 되는 기제이다”(Caruth, “Interview” 138). 트라우마의 생존자들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힘을 되찾는다. 이야기의 내용은 그가 겪은 외상적 사건과 그의 생존에 관한 회상(recollection)이며 반복적 기억(repetition)이다. 중요한 것은 이야기하기를 통해서 파이가 그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외상적 기억을 서사 기억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일관성이 없는 저항하는 사건을 재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파이가 원하는 끝을 잘 마무리하는 작업이란 곧 악몽으로 반복되는 리처드 파커가 표상하고 있는 외상적 기억을 서사화하는 것이다. 창조적 트라우마 서사<sup>6)</sup>는 생존자가 파편화된 트라우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려서 그 기억에 형태와 의미를 부여하고 자아를 재창조할 수 있게 돕는 능동적 행위라는 점에서 창조적일 수 있다. 즉, 트라우마를 극복하여 치유로 향하는 창조적 서사 행위이다. 이러한 트라우마 서사를 통해 자기 삶의 재정의와 재구성이 시작될 수 있다. 파이가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리처드 파커와 적절하게 작별하여 끝맺음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생존자의 능동적 노력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파이가 태평양에서 육창처럼 기억에 동지를 튼 공포에 맞서, 모든 것을 썩게 하고 “말까지도 썩게” 하는 공포에 맞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힘껏 싸우고 “말의 빛을 비추도록”(162) 열심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리처드 파커를 트라우마와 증상의 상징적 기표로 볼 때 그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끝마무리를 잘한다는 행위는 트라우마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극복해 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트라우마 증언이 복잡하고 어려운 점은 생존자의 이야기(기억 이미지 생 각)가 반드시 일어난 사실을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사실 때문이다(Caruth, "Recapturing Past" 151). 반드시 일어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났으면 하는 대로 말한다(Peters 20). 이야기의 진실성은 생존자에게 달려있다. 파이가 작가에게 말하는 기억의 단계에서 나타나는 말들은 모호하다. 작가는 파이가 “궁극적 목표 의 식”(sense of ultimate purpose 63)은 가지고 있으나 “혼란스러운 지성”(an intellect confounded 63)이라고 관찰한다. 파이가 보여주는 증언의 양상도 모호하다. 파이는 외 상적 사건에 대해 두 개의 다른 내용과 방식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 두 개의 스토리텔 링은 트라우마의 영향으로 파이의 의식이 불안에 지배당하고 있거나 부정적 영향력 아래 놓였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는 파이가 일어났으면 하는 리처드 파커를 포함한 동물이 있는 환상적인 이야기, 즉 “더 나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 다. 이러한 독해는 파이가 트라우마의 생존자임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작가도 파이에 게 직접 들은 동물이 나오는 이야기 외에 일본인 조사관이 보낸 녹취록과 보고서에서 동물이 나오지 않는 더 폭력적이고 충격적인 두 번째 방식의 이야기를 알게 된다. 결국, 두 가지 방식의 이야기 중에 어느 이야기가 진실인지는 가려지지 않은 채 소설은 끝나고 듣는 자로서의 작가와 독자는 해석학적 곤궁에 처하게 된다. ‘진실’인 이야기 가 아니고 ‘더 나은 이야기’를 택하기로 하는 것과 ‘더 나은 이야기’가 어느 이야기인 지 선택하는 것은 작가와 독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외상적 사건의 순간을 기억할 때의 진실성 문제를 포함하여 기억에는 복잡성이 내재하므로 듣는 자는 복잡한 위치에 놓 이게 되고 타인의 트라우마 이야기의 듣는 자, 증인이 되는 것에는 책임과 위험이 따 른다. (Caruth, *Trauma* 4, 5)

트라우마 연구는 재현의 패러독스로 인한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재현의 패러독 스란 트라우마의 순간을 완전히 짚어내어 언어(특히 홀로코스트에 있어서)로 번역해

내는 것의 불가능성과 이 트라우마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새 청자들에게 번역해 주어야 할 필요성 사이의 진퇴양난이다. 한 사건에 대해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파이도 재현의 패러독스로 인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락허스트는 트라우마의 핵심에 있는 이러한 모순을 “서사/반-서사의 긴장”이라고 지칭한다. 모드린터 (Martinn Modlinter)와 손택(Philipp Sonntag)이 편집한 『타인의 고통: 트라우마 서사와 윤리 문제』는 재현의 패러독스를 인지하는 가운데 트라우마를 재현해내는 데 있어서의 윤리 문제를 추구한다(Scherzinger 재인용 4, 120). 그 윤리 문제란 희생자, 증인, 관람자, 작가, 독자, 학자 등 ‘우리’의 시각과 발화 지점의 위치를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파이는 희생자로서 재현의 패러독스에도 불구하고 증언하고자 하는 발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듣는 자로서 일본인 조사관들은 그의 두 종류의 증언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믿지 않는다. 반면에 작가는 그의 증언을 100장(章)의 이야기로 형체를 준다. 이 두 다른 반응의 대조를 통해 듣는 자의 위치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 V. 듣는 자의 윤리

쇼새너 펠만(Shoshana Felman)과 라옌은 『증언: 문학, 정신분석학, 그리고 역사에서 증언의 위기』 (*Testimony: Crises of Witnessing in Literature, Psychoanalysis, and History*)에서 듣는 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논한다. 듣는 자가 없다면 증언의 순간은 오지 않으며 외상 피해자의 치유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어떤 듣는 자가 될 것인가 하는 듣는 자의 태도와 윤리 문제가 대두된다. 콜린 데이비스(Colin Davis)는 트라우마 이야기를 듣는 자는 일부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라옌의 견해를 수정하는 한편 “우리는 다른 사람의 트라우마에 참여하거나 트라우마를 같이 소유하지 않는다. 그렇다는 생각, 또는 욕망을 거부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적 이해를 한다는 자기기만에 빠지기 쉽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일본인 조사관

처럼 믿기를 거부하는 듣는 자가 있는 한편, 완전한 공감적 이해를 강조하고 표방하는 태도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데이비스에 의하면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짊어지거나 타인의 삶과 죽음의 의미를 결정할 수 없으며 독자나 청자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은 이질적인 것의 흔적을 존중하며 따라가는 것뿐이다(Scherzinger, 재인용 121). 작가의 듣기/글쓰기는 이와 같이 파이의 증언의 이질적인 것의 흔적을 존중하며 따라간 것이라 할 수 있다. 데이비스의 주장은 도미니크 라카프라(Dominick LaCapra)가 제시한 청자의 윤리로서의 공감적 불안정성(emphatic unsettlement) 개념과 맥을 같이 한다. 공감적 불안정성은 최근의 공감(empathy) 연구에서 중요하게 부상한 개념이다. 감정이입과 공감이 항상 긍정적이며 실천적으로 가능하다는 전제에 대한 수정으로, 공감하되 선불리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태도를 지양하고 열린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윤리적 태도이다<sup>7)</sup>.

토론토의 현재 상황과 Pondicherry 유년기의 회상을 다루고 있는 1부 토론토와 Pondicherry에서(Toronto and Pondicherry)의 스토리텔링에서 파이는 이야기를 하고 작가는 듣는 사람으로 등장한다. 1부는 두 사람의 이야기 공간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신과의사와 상담을 받는 환자의 이야기하기를 소설로 옮겨놓은 듯한 장면이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대화 치료(talking cure)로서 분석가처럼 개입하여 외상적 고통을 기억해내어 이야기하게 함으로써 외상의 정면돌파를 돕는다. 이 이야기를 끝내는 것은 파이가 끝마무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한 리처드 파커와의 작별을 고하는 것이며 “끝을 잘 맺는 것”이다. 이야기로 끝을 잘 맺는 것은 완전한 치유는 아닐지라도 치유로 한층 접근해 가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다. 이것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안전한 공간과 믿을 만한 듣는 자가 있기에 가능하다. 작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42) 들어주는 공감적 불안정을 가진 듣는 자가 되어주고 파이는 자신의 외상 경험을 증언하면서 외상의 정면돌파에 가까이 다가간다. 작가는 말없이 파이를 관찰하고 들어주는 한편 선부른 동조나 위로를 하지 않으며 그가 사진첩을 닫는 것을 지켜본다.

*“가장 끔찍한 일은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속  
으로 어머니를 그럴 수는 있지만 모습은 점점 사라져요 잘 보려고 하자마자 곧*

희미해져 버려요.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어머니를 길에서 만난다면 모든 게 되살아나겠지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자기 어머니 모습을 기억할 수 없는 건 정말 슬픈 일이에요.”

그가 사진첩을 닫는다.

*“The worst of it,” he says “is that I can hardly remember what my mother looks like any more. I can see her in my mind, but it's fleeting. As soon as I try to have a good look at her, she fades. It's the same with her voice. If I saw her again in the street, it would all come back. But that's not likely to happen. It's very sad not to remember what your mother looks like.”*

*He closes the book. (italics in the original 87)*

작가는 ”이질적인 흔적을 존중하며“ 파이의 증언을 들으며 파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파이의 증언을 듣는 것은 또한 작가에게 자기 삶의 성찰도 하게 한다.

나는 오후 내내 그와 시간을 보낸 이후 생각에 잠겨 시내의 한 카페에 앉아 있다. 그와 만날 때마다 내 삶의 음울한 만족감에 싫증이 난다. 그것이 내 삶의 특징이 되어 버렸다. 그의 어떤 말이 나를 흔들었을까? 아, 그렇다. ‘메마르고 누룩 없는 사실주의’ ‘더 나은 이야기.’ 나는 펜과 종이를 꺼내 쓴다. [...] 나는 잠시 멈춘다. 신의 침묵은 무엇일까? 생각에 잠긴다. 덧붙여 쓴다. 혼란스러운 지성이지만 확실한 존재감과 궁극적인 목적의식.

*I am sitting in a downtown cafe, after, thinking I have just spent most of an afternoon with him. Our encounters always leave me weary of the glum contentment that characterizes my life. What were those words he used that struck me? Ah, yes, "dry, yeastless factuality," "the better story". I take pen and paper out and write. An intellect confounded yet a trusting sense of presence*

*and a ultimate purpose. (Italics in the original 63)*

파이의 트라우마는 본인에게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채 무의식 안에 억압되어 있으면서 리처드 파커라는 악몽의 반복적 강박, 불안 등의 증상으로 나타났다. 증상에 시달리는 파이는 종교의식으로 사랑과 구원의 신에 의지한다. 그러나 증상에서 벗어나려면 내면세계와 직면하여 외상 대상의 형체를 뚜렷이 하고 외상체험을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 20년 전 과거에 형성된 파이의 중층의 트라우마 체험은 현재까지 트라우마의 사후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 증언의 스토리텔링은 과거 당시의 체험을 적극적으로 기억해 내어 트라우마의 극복과 증상의 치유를 돕는다. 작가는 파이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놀라움을 표시한다. 파이가 약사인 부인, 아들과 딸, 동물(어린 딸 우샤가 가지고 온 고양이)과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허먼이 말한바 외부와의 연결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작가는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This story has a happy ending 93)이라고 말한다. 이는 파이가 트라우마의 희생자로 남아 있지 않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트라우마의 극복과 치유의 길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트라우마의 서사화는 역설적으로 파이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된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상처를 직시하고 외상의 기억을 복원하고 객관화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묻고 자기 삶을 재정의하고 부서진 자아에서 본연의 자아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트라우마를 파괴와 소생의 양가적 성격을 가진 두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다(Caruth, *Trauma* 58)

리프톤은 캐루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자아 회복으로 가는 길일 뿐 아니라 생존자에게는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책임이 된다고 말한다. 죽은 자들에게 대한 기념비를 만드는 것이다(Caruth, “Interview” 138) 서사적 기억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부서진 자기 자신을 말로써 재구성함과 동시에 상실한 것들에 대해 애도하는 것이다. 애도의 스토리텔링의 대상은 외상적 사건으로 잃은 조국과 가족 등 사랑하는 대상뿐 아니라 자신이 잃은 ‘외상 전의 자아’이기도 하다.

외상체험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청자인 작가도 파이와 마찬가지로 치유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 소설 시작 부분에서 작가의 삶은 의미를 잃고 불꽃이 죽어버

린 그의 소설처럼 죽어있었다. 파이 이야기의 내용과 이야기를 듣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작가는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직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야기하기와 삶을 등치하는 작가의 삶도 불꽃이 있는 이야기를 만나 힘을 얻고 창조적으로 소생한다. 마텔은 삶이 이야기라고 주장하며 『파이 이야기』의 주제를 세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인생은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야기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더 나은 이야기”를 선택 하라. 세 문장이다. 『파이 이야기』에서 파이와 작가는 증언자와 듣는 자로서, 증언의 스토리텔링을 통해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길로 들어서는 것 자체를 더 나은 이야기로 선택한다.

---

#### Notes

- 1) 여기에서 “작가”는 현실(마텔 자신)과 허구(소설 내의 작가)를 구분할 수 없는 “작가 노트”의 서술자이다. 1부 파이의 이야기에서 듣는 자로서의 그의 관찰은 이탤릭체로 삽입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서술자를 작가라고 칭하기로 한다.
- 2) 임상에서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상황 자체를 가리킨다. 광의로 볼 때 병리적 감정이나 행동을 낳는 스트레스 및 충격, 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과 영향을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나 상황은 외상적 사건, 또는 트라우마, 이로 인한 병리적 감정이나 행동 등의 상처, 즉 증상은 트라우마라고 쓰기로 한다.
- 3) 이후 쪽수만 괄호 안에 적기로 한다.
- 4) 이 논문의 번역은 필자.
- 5)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은 글을 쓰는 것을 포함한다. 트라우마에 관해서 쓰는 것은 힘 없음, 고통, 고난, 고문, 부인, 억압을 표현하는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 6) “창조적 트라우마”는 창조적 질병에서 차용한 개념이다. 창조적 트라우마에 관해서는 앨 콜린스(Al Collins) 참조.
- 7) 이는 선부른 공감을 지양하는 것뿐 아니라 듣는 자가 겪을 수 있는 간접 외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인용 문헌

- 허먼, 주디스. 『트라우마: 가정폭력에서 정치적 테러까지』. 최현정 역, 플래닛, 2009.
- Allen, Thomas E. "Life of Pi and the Moral Wound." *Journal of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vol. 62, no. 6, 2014, pp. 965-82.
- Caruth, Cathy. "An Interview with Robert Jay Lifton." *Trauma: Explorations of Memory*, edited by. Cathy Caruth, Johns Hopkins UP, 1995.
- \_\_\_\_\_. *Listening to Trauma: Conversations with Leaders in the Theory and Treatment of Catastrophic Experience*. Johns Hopkins UP, 2014.
- \_\_\_\_\_. *Trauma: Explorations of Memory*. Edited by Cathy Caruth, Johns Hopkins UP, 1995.
- \_\_\_\_\_. *Unclaimed Experience: Trauma, Narrative, History*. Johns Hopkins UP, 1996.
- Collins, A.I. "Sea Change: Creative Trauma in Ang Lee's *Life of Pi*." *Jung Journal: Culture and Psyche*, vol. 8, no. 4, 2014, pp. 87-92.
- Duncan, Rebecca. "*Life of Pi* as Postmodern Survivor Narrative." *Mosaic*, vol. 41, no. 2, June 2008, pp. 167-83.
- Freud, Sigmund. "Beyond the Pleasure Principle."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VIII, Translated by James Strachey, Hogarth Press, 1955, pp. 7-64.
- \_\_\_\_\_. "Remembering, Repeating and Working-through." *The Standard Edition of The Complete Psychological Works of Sigmund Freud*, vol. X12, translated by. James Strachey, Hogarth Press, 1955, pp. 147-56.
- LaCapra, Dominick. *Writing History, Writing Trauma*. Johns Hopkins UP, 2001.
- Laub, Dori, and Shoshana Felman. *Testimony: Crises of Witnessing in Literature*,



*Psychoanalysis, and History*. Routledge, 1992.

Luckhurst, Roger. *The Trauma Question*. Routledge, 2008.

Martel, Yann. *Life of Pi: A Novel*. Houghton Mifflin Harcourt, 2001.

Modlinter, Martin, and Philipp Sonntag, editors. *Other People's Pain: Narratives of Trauma and the Questions of Ethics*. Peter Lang, 2011.

Mill, Colleen. *Frames, the Fantastic and Allegory: Narrating Trauma in Yann Martel's Life of Pi*. Diss. U. of Johannesburg, 2012.

Peters, Rachel Marie. *Preying on His Mind: The Trauma of Pi Reading Yann Martel's Life of Pi as a Narrative of Trauma*. Thesis, Southeast Missouri State U. 2015.

Scherzinger, Karen. “Other People’s Pain: Narratives of Trauma and the Questions of Ethics.” *Journal of Trauma Studie*, vol. 1, no. 1, Spring 2012, pp. 119-23.

Whitehead, Anne. *Trauma Fiction*. Edinburgh UP. 2004.

Abstract

**Trauma and Testimony as Cure: A Study of Yann  
Martel's *Life of Pi***

Cho, Sungran  
Kyung Hee University

This paper reads *Life of Pi* as trauma narrative. Pi experiences multiple traumatic events which include collective trauma of being uprooted from his home country; a shipwreck; deaths of parents and a brother; and survival on a small lifeboat with a 400-pound Bengal tiger for 227 days in the Pacific Ocean. His traumatic symptoms are depression, compulsion, and repetitive nightmares of the tiger Richard Parker, 'acting out' of trauma as 'repetition compulsion'. Richard Parker is the signifier of his trauma. Eating human flesh is especially traumatic to Pi since through the act he transgresses the ethical boundary of being human. Curing the symptoms requires recollection, recognition of loss, mourning and 'working through' of the trauma by testimony. Pi confronts his inner self and attempts to clarify and objectify his trauma by collecting shattered memories and by telling stories. He tells two versions of the same traumatic events. The truth of the stories is not resolved. Creative trauma narrative is an on-going process of active undertaking of redefining and recreating self. The author functions as a listener of empathic unsettlement. While helping Pi, the author writes a good story, *Life of Pi*. The author's life gets re-vitalized by listening to Pi's story, as Pi is in the process of cure from trauma by storytelling.

**Key words:** *Life of Pi*, Yann Martel, Trauma, Cure, Testimony

논문접수일: 2020.05.21

심사완료일: 2020.06.17

게재확정일: 2020.06.25

이름: 조성란

소속: 경희대학교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학부 영미문화 전공 교수

주소: 1710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이메일: scho@khu.ac.kr

